참부흥 설교법

(요6:60~71)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부흥 설교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목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고, 좋게 말해 담대하다고 할까요?
참 부흥을 장담할 수 있는 설교법을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본문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설교법이 있습니다.
이 설교법에 의한 설교가 아닌데 일어나는 부흥이라면 그건 참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에 참을 넣어서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는,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결국 시쳇말로 영원 무궁히 지낼 수 있게 자리를 잡았고, 신천지가 날로 그 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박ㅇㅇ 목사님이 이끄는 그런 단체, 이렇게 종교 영역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인 영역에서도 중국의 부흥, 일본의 부흥, 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대 앗수르와 이집트, 바벨론의 부흥, 그리스의 부흥,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부흥인데, 참 부흥을 가져오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마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참 부흥을 가져오는 설교법을 얘기하면 설교가 거칠어야 됩니다, 거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여기서 '어렵도다'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까칠해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의 말이 '어렵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본의 뜻입니다.
거칠다, 까칠하다, 받아들이기가 영 어렵다.
이 '거칠다'는 말을 우리가 햅쌀로 만든 흰 쌀밥과 순수 현미밥 또는 100% 잡곡밥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가죠.
설교를 이처럼 거칠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강원도에 사니까 이곳에 오징어가 유명해요.
오징어를 먹는 방법 중에서 그 딱딱함과 부드러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부드러운 건 물회로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오징어를 썰어서 초장에 비벼서 물회로 먹는 거고,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먹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반 건조 오징어가 있고, 네 번째는 오징어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조 오징어가 있는데, 건조오징어를 구워먹는 게 가장 딱딱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건조오징어를 구워서 먹다가 남겨서 며칠 지났을 때 다시 생각나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 그때는 오징어가 돌덩어리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물회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구워서 먹다가 남겨두고 일주일이 지난 뒤의 오징어와 같은 그런 상태, 말씀을 그렇게 거칠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부흥에 도달하는 설교법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시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결국 마지막 66절에 보면,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썩썩 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자, 사태의 진전과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을 주님께서 겪으셨는지, 우리가 보통 부흥을 원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역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프던 차에 배가 불러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먹었다면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았을 것이에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열두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소프트한 생크림 케이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이 끝나자마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 쫓아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급하게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제의 그 경이로운 광경에 완전히 impressed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거친 설교를 해대십니다.
결국은 거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거친 설교를 한 것 때문에 너희가 수군거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아예 더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기 이전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이 왜 더 거친 것이 되었을까요?
그리고는 '다 떠나고 제자 중에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마음이 아파요.
특히 목회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교인이 다시는 내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내게 잘못이 있는가를 다 찾아내서 잘못이 있는 나를 쥐어박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한 교인이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에 아예 코빼기를 보이지 않을 때 목사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떠나보내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거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납니다.

여러분, 거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왜 거칠다고 얘기하고, 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고 해놓으시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죽는 당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임금의 왕관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도 그분을 믿고 따를까 말까 한데, 내가 죽을 건데 죽는 나를 믿으라고 하시니까, 그 죽는 나를 어떻게 믿고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칠다고 말하며 회의의 느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리시기는커녕, 아예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입지적인 사표로써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할래? 한술 더 뜨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해주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되게 해주는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을 믿으라고 해놓고선 기껏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부 이 땅에 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분이 당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 하니라'
여러분, 알겠어요?

교회의 3요소가 뭐냐 하면,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하나의 내용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세례와 성찬의 원형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설교가 십자가복음 설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참 의미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떠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복음의 원조격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법이라는 거예요.
참 설교법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교함을 통하여 다 떠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떠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참 부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다 떠나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에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죽으심을 내 마음이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님의 죽음을 먼저 받아들이면 돈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 문제를 팔 걷어붙이고 나서 해결하고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을 직시하면서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문제보다 주님의 죽음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이 몸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관심이 끊어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식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온 자매에게 목사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우선시하여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먹음으로써 자녀에 대해서 일단 마음이 죽으세요!' 해버리니까 그 자매가 '당신에게 상담하러 온 내가 바보지!'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자로서의 사표로 당신을 제시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죽는 자로서 제시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분으로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여놓은 소중한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배우자, 자식, 가정, 직장, 나라,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껴안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설교를 해주는 것, 자식을 품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될 거다', 돈과 사업을 품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될 거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소프트한 설교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먹고 내 마음이 붙들고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서 껴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내보낼 정도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죽여라!' 이렇게 거칠게 설교하는데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부흥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의.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도 부흥이 일어나면 일단 먼저 의심부터 하세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그렇게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그 교회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되, 거친 설교가 있는가,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좋고 소중하고 귀해서 마음에 들여놓은 것을 껴안고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죽으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것에 대해 죽으라고 하는 거친 설교가 있는데도 부흥을 하고 있으면 참 부흥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이 없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정통교회, 정통교단 안에서도.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어떡하든지 교인을 교회에 붙여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의 죽으심을 먹으라고 설교하면서 교인을 쫓아내는 것이 내 일이고, 오늘 본문에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먹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서 육체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소중하고 좋고 사랑해서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죽어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떠나게 되는 일,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와 목회와 설득과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교회에 발붙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 설교를 가지고 쫓아내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하시는 목회를 하려면, 주님을 따라하시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로 쫓아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죽으신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심으로써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분은 박 근혜 씨도 이 건희 씨도 서울대 총장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아버지 한분뿐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사건을 단 한시도 잊지 못하십니다.
왜? 십자가사건은 나 개인에게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주님의 승천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나 자신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급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 받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을 받아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 부흥입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로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넣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거친 설교를, 거친 밥을, 정말 돌멩이처럼 굳어진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인 참 신자들이 모여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도 이 순간에 11명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단단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사건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주신다는 얘기에요.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이전에 아버지의 심정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거꾸로 독생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이 내게 와서, 내가 성공하신 주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바로 참 부흥이라는 겁니다.

열한 제자도 도망가는 그 지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 지점, 설교자 자신이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지요.
그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사람의 부흥, 형편의 부흥, 아무런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해도 다 가짜 부흥이에요.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거친 설교가 내게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거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을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모이게 해주시는 그 부흥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날 것이면서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은 아직도 땅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으신 주님을 스물 네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같이 만나는 참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